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27회차, 새로운 정체성과 도덕성, 에베소서 4:17-32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27, 새로운 정체성과 도덕성, 에베소서 4:17-32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감옥서신의 거의 모든 책을 다루었고 에베소서 중간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읽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United We Build라고 부른 것, 연합에 대한 바울의 훈계,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나머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이 연합을 증진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입니다.

이 특정 영역에서 우리는 4장 17절에서 24절을 다루는 세션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룰 것이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는 교회에서 분명해야 할 몇 가지 도덕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앞서 언급한 그 연합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 세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말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무함으로 행하는 것같이 다시는 행하거나 살지 말라. 여기 보시는 이 구절에서 바울은 호소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에서 나는 말하고 증거한다. 그가 거기서 증거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증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을 권고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거나, 원한다면, 진지함이 약간 섞인 부드러운 호소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전하며,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제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할 때쯤이면, 에베소서 4장에 대한 다른 책이 나왔거나 그런 종류의 책이 나왔을 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No Longer Living as the Gentiles*라는 책을 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 살펴보고 윤리 원칙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2006년부터 동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매우, 매우 축복받았습니다. 새로운 해설자들이 제가 주장하려는 입장에 양보하는 것을 보고 기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편지를 쓸 때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살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년 동안, 바울이 이방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할 때, 그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방인을 언급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할레자라고 부르는 자들과 너희를 할레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민족 유대인-이방인 체제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모든 유대인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그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그것이 외부인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외부인, 즉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러운 이방인으로 볼 때, 그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당신이 미국 문화에 대한 특정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학문에 도입하는 것 중 하나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에서 차별화의 수사학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의 눈으로 이방인이 아니며, 따라서 더 이상 이방인 외부인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포함되었다고 느끼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키는 삶을 사는 데 관련된 의무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며, 그는 먼저 그들의 사고방식에 도전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를 위해 지식, 사고방식, 추론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말하거나 기도하는지에 대한 에베소서에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먼저 모든 진지하게 사고방식을 살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마음의 허무함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언어이며,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가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함에 대해 사용된 단어는 로마서에서 사용되며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허무하게 되었고, 그들의 무의미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무의미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무의미한 사고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관시키기 위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지 않으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허무함 속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인은 결코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포함되고, 중요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이지만, 외부인이 마음의 허무함 속에서 가진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고 단언하기 위해 이 단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졌고, 저는 18절을 읽었는데,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추론 방식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둠의 삶이 그리스도 없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둠이며, 또한 권세와 통치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좋은 소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가지실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8절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들 안에 있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고, 멀어지는 원인은 무지와 완고함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반을 개발하라고 기도하고 촉구했으며, 그는 또한 영이 그들의 내면과 마음에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그들은 그가 온유한 외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경건한 것은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노선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마도 19절에서 그들이 냉담해져서 음란함과 탐욕에 자신을 내주고 온갖 부정을 행했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함에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이해와 헛된 생각으로 그들은 온갖 음란한 악행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제가 감각적인 사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때 제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죠. 이것이 기독교의 도덕적 틀입니다. 온갖 성적 라이프스타일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처럼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강의의 초반 부분에서 저는 철학자 데모스테네스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그는 그리스 남성이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정부를 둘 수 있다고 말했고, 합법적인 아내를 두는 것은 합법적인 자녀와 좋은 상속인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온갖 방탕한 생활 방식으로 축소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두워진 이해와 무익한 사고방식이 실제로 그들을 이 모든 것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탐욕과 온갖 불순함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는 의례와 청결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지만, 그리스어 신약에서는 때때로 이 단어가 성적 행동과 연관되어 사용되어 모든 종류의 부정한 성적 변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때때로 성 윤리의 경연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인 탐욕과 함께 사용합니다. 성 윤리에서 탐욕은 종종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누군가의 파트너를 질투하여 그 사람을 얻으려 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탐욕에 의해 주도되는 정욕은 다른 사람의 파트너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그 강박감은 성적으로 탐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 성적 욕망과 탐욕이 만나는 곳을 살펴보세요. 그 단어는 때때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자신은 탐욕을 비난했지만, 어쨌든 사회에는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을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때때로 이상을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 문화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덜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탐욕을 특히 비난하는 특정 철학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디오 크리소스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오 크리소스톰은 개종 에 대한 논문에서 탐욕은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악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므로 아무도 탐욕스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달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가르치고 싶어하지만, 모두가 그를 피하고 원수로 여긴다.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비난한다면 탐욕이 만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도덕성과 고대 도덕성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서 종종 우리의 도덕적 담론에서 혼동되는 것 중 하나가 이상과 대중 문화의 차이라고 말했다.

저는 현대 문화보다 1세기와 2세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으로서, 도덕주의자들이 무엇이어서 하는지, 대중 문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때때로 미국의 법률과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똑같은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자는 만연한 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방식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수준의 탐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에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미덕과 악덕, 효율성에 대해 쓴 곳에서, 탐욕을

철저히 비난하는 수많은 철학자와 도덕가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함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에는 철학자들이 하는 게임 중 하나는 와인을 몇 갤런 가져와서 누가 일찍 갤런을 내려놓을지 보는 것 입니다 . 그들 자신, 이상, 대중 문화. 기독교에서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의 형성에서, 그는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삶을 살게 할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특히 20~21절에서 성경에 없는 핵심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전의 생활 방식에 속하고 속이는 정욕으로 타락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자아를 입는 것입니다. 특히 20~21절에서 헛된 마음이 변했고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사람을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배우거나 어떤 종류의 정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학문이나 에베소서에서 이 표현은 신약의 그런 표현과는 매우, 매우 다르며, 아마도 이런 종류의 어색한

표현이 있는 유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매우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전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작가 중 일부가 신을 언급할 때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특정 신을 배웠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단지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우고 있다는 강한 감각을 실제로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영적으로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영적인 존재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이 전해진 지식의 몸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제 학생들 중 일부가 자료를 씹어 외우고, 제가 시험에서 그 질문을 하고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저에게 쏟아부어 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것을 처리하고 체현하고 경험한다면, 급진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마음의 허무함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들었다고 가정하면, 들음, 들음, 듣는 것, 듣는 것,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그에 대한 무언가를 듣는 것,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처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헛된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이것이 진실이며, 이방인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에 대해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윗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은 변형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마음의 변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금욕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금욕 철학에서 모두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행동 방식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추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두워진 이해와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타락한 도덕적 경쟁 속에서 살고 타락한 도덕적 특성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다르게 배우고, 알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었고,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그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는 옷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여 낡은 것을 벗고, 낡은 옷을 벗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는 또한 이전의 삶의 방식이 기만적인 욕망에 의해 타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명령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룩하세요.

여기서 그는 개인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우고, 알고,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주는 낡은 옷을 벗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전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벗고 찢어진 옷과 누더기 옷과 같은 창피한 행동을 벗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이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23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새롭게 됨. 그것은 명령형이 아니다. 그것은 중간에 있으며 그리스어에서는 분사형으로, 그들은 마음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

옛 것을 벗어버리자. 이제 다시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변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여기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하게 하세요. 신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당신의 행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이 갱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면, 두 번째 명령은 새로운 것에 입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의 본질, 새로운 것이 창조됩니다, 24절, 그리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접했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모든 선행을 하기 위해 미리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24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어울립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그 정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할 때 선반에 두고 있을 법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래된 좋은 매튜 헨리 주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선반에 올려놓고, 확인해서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 특정 구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최악적인 욕망은 기만적인 정욕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끕니다. 만약 억제되고 죽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낡은 옷,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억제되고 죽어야 하지만, 타락한 원칙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새 본성, 새 창조물, 새 원리, 심지어 거듭나는 은혜로 인도되어 사람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옛 것을 벗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개인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두 가지 필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의로움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설명되며, 동료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반영합니다.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따로 구별됨, 신성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됨.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틸먼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독자들의 삶이 회심할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특징짓는 혼란, 악마의 지배, 절망을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의 생각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메모를 마치며 그들이 어떻게 의와 거룩함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상기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미덕과 악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절에서 32절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덕과 악,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더 많은 대조 패턴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이전에 대조 패턴을 사용했지만, 2장에서 그때와 지금 더 많은 면에서 대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장에서 그는 17절의 대조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개발되어야 할 사고방식과 대조되는 온유한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여러 면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어 본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는 대조를 통해 유사점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도덕적 담론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대조하는 매우 유용한 수사적 전략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록의 첫 번째는 거짓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진실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세요. 이것은 텔레비전이 없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문화이며, 더 공동체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문화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 연합이 우세하려면 진실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 또는 각 구성원은 신뢰를 키우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동료 신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 신자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각 멤버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실을 언급했으니, 여기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노에 관해 그가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27절.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고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바울이 나중에 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그는 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담론에서 분노와 분노를 대조합니다.

와. 분노와 분노의 대조. 화를 내는 게 괜찮은 걸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생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죠.

익숙한 일인가요?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할 때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를 보고 전화기를 부수고 싶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익숙한 일인가요? 마치 칼이 영혼을 치는 것처럼 강한 인물을 가리키며 너무 화가 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용기는 어떨까요? 이제 20대 중반과 40대의 모든 젊은 남녀가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도 화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노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이 필수인 문화입니다.

문학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마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루마니아 표현으로, 그들은 격려를 받습니다.

반쯤 취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에서 나온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노는 일을 너무 멀리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도덕주의자들이 분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후대 철학자들이 상당히 발전시킬 속도를 정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4에서 그는 올바른 일에 올바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틀 안에서 좋은 목적을 위해 적절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사실 고귀한 일입니다. 바울은 화를 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어로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명령형은 화를 내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화를 내라고 간청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화를 내어 이게 뭐야?라고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기저기서 화를 냅니다. 바울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점은 분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사회의 악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해야 그러한 잘못을 해결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평화로워지도록 판사가 잘못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내릴 만큼 화가 나야 하는 법정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확장합니다. 때때로 그는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화가 난 척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형을 선고할 때 형을 정하는 사람이 그 판사 앞에 다시 나타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대의를 위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분노와 그 모든 분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면, 그는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 4에서 같은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성미로, 우리는 SS를 물리치기보다는 반대합니다. 결함, 미안합니다.

아니라, 성격이 나쁜 사람은 같이 살기가 더 나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이 상대하기 매우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4장 31절에서 바울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431에서 그는 분노의 목록을 제시하며, 모든 악의와 분노와 분노와 떠드는 소리와 중상모략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에게서 치워 버리라. 분노, 떠드는 소리,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분노의 다른 형태를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26절에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너희에게서 치워 버리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는 것을 분노에 두지 마십시오.

그가 여기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장기간의 분노는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그는 그것을 치우라고 말할 때조차도 마치 사람이

분노의 정신에 너무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분노에 대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노는 분노, 분노, 떠드는 소리, 중상모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영어 번역은 이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쓴맛으로 번역된 첫 번째 단어인 쓴맛은 저주, 거칠거나 쓴 말의 형태로 터져 나오거나 넘쳐날 수 있는 깊이 자리 잡은 분노이며, 따라서 그 뿌리와 밑바탕은 쓴 쓸개와 같습니다. 이 형태의 분노가 터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암처럼 정신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모든 좋은 특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쓴맛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집을 찾아 그대로 유지되는 분노의 한 형태이며,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매우 씹쓸해져서 사람들이 매 순간 쓴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삶을 사는 방식으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번역된 다른 단어는 분노가 가장 폭력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달하므로 분노가 스스로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인 친구에게 이것이 제 고향 가나에서 이탈리아식 분노의 형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나 북부에는 특정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말은, 그냥 좀 쉬세요, 어서, 어서, 좀 쉬세요라고 터뜨린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씹쓸함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씹쓸함은 거기에 앉아서 그들을 먹어치우고, 그들을 지치게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분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서 거두어가시도록 자신을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노의 다른 형태는 이전에 사용했던 전통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침착함 속에 보관된 인간의 영혼의 조용하고 확실한 반응으로 이해됩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때때로 소란으로 번역되는 다른 하나는 화가 나서 소리치고 고함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신성모독이거나 때로는 악의적인 말입니다. 때때로 악의는 실제로 짜증이나 좌절의 결과로 신에 대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우리는 항상 화가 나요.”라고 정당화하는 화가 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는 것을 분노에 두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당신 스스로의 행동이든 아니든, 당신에게 가해진 일이 원망과 분노에 갇히고, 내가 지적한 이 모든 형태의 분노는 당신에게서 치워지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 당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입힌다고 합니다. 영어로 잘 이해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입힐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이 상처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적용 시,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이것을 멀리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기독교 지도자와 상담가와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구하십시오.

분노는 파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제가 잘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것을 하기 전에, 와인과 분노,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섞인 와인은 분노만큼 과격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와인과 함께 흘린 말은 웃음과 장난에 잘 어울리지만, 분노에서 나온 말은 쓸개즙과 섞인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칠 때, 게으르게 뒷걸음치는 혀를 제지하라.

혀를 잘 조절하세요. 하지만 이제 바울이 분노 조절을 위해 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그는 분노가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하지만 분노에 해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시간 제한이 있게 하라. 분노는 짧게 지속되어야 한다. 당신이 그 문제를 용서하거나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자리 잡고 해를 끼친다.

27절은 자주 언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27절은 26절과 매우 간단한 접속사로 연결되어 분노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고 분노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읽힙니다.

분노는 잠재적으로 악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다면, 그리스어로 토포스(topos)라는 틈새를 만들어 악마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믿는 사람이 악마가 들어와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믿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32절과 빠르게 대조시키며 분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노 대신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부드러운 마음, 실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그 반대의 특성이 일어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찾는 대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에서 용서할 자리를 찾으세요.

용서는 그것을 향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문에서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듯이, 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하듯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또는 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우리가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분노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자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노가 깃듭니다.

많은 비통함, 원망, 중상모략, 모독, 험담은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리스어 단어 *aphiemi*를 좋아하는데,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 단어는 이혼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 7장이 이혼에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놓아주는 것, 놓아주는 것, 고통의 원인을 놓아주는 것. 당신의

배우자이든, 목에 걸린 고통이든, 당신을 해치는 누군가이든,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직업 윤리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합니다. 28절에서, 그것은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하여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고 읽힙니다.

도둑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을 읽은 많은 도덕가들이 도둑질을 비난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매우 흔했습니다.

사실 크레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해적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도덕주의자들은 도둑질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대조는 흠치는 대신, 회원들이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고대 세계에서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은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 로마 철학자 키케로도 명예를 위해서만 관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하여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렸노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는 여러분 중에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에는 열중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라고 명령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잠언 10장 4절을 좋아합니다. 특히,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좋은 소식 번역본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무언가를 벌어서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조하는 것의 마지막은 저속함과 교화하는 말의 대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그는 썩은 말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합니다. 가처분 명령은 이렇습니다. 나쁜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썩은 단어라는 단어는 학자들이 논의하는 무언가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성서 어딘가에서 문자 그대로 썩거나 썩은 과일로 나타나지만, 비유적으로 해롭고 건강에 해로운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모욕적인 언어, 저속함 또는 경멸적인 말이나 연설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종류의 언어와 어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해치거나 독살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책임과 영광스럽게 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세션을 말에 관해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특정 세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그 열매를 좋게 하거나, 나쁜 나무와 그 열매를 나쁘게 하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의 자식들이야,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너희가 하는 모든 부주의한 말에 대하여 해명할 것이요. 27, 37절, 너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라.

연합이 신앙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에서 일하시지만, 공동체 구성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거짓에 대해 행동하는 방식,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정직, 성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공동체를 건설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가족을 건설하거나 가족을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교화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져다주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건설하거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공부가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수 권총에 대해 세 가지만 더 공부해야 하므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7, 새로운 정체성과 도덕성, 에베소서 4:17-32입니다.